5월 22일(수)~5월 24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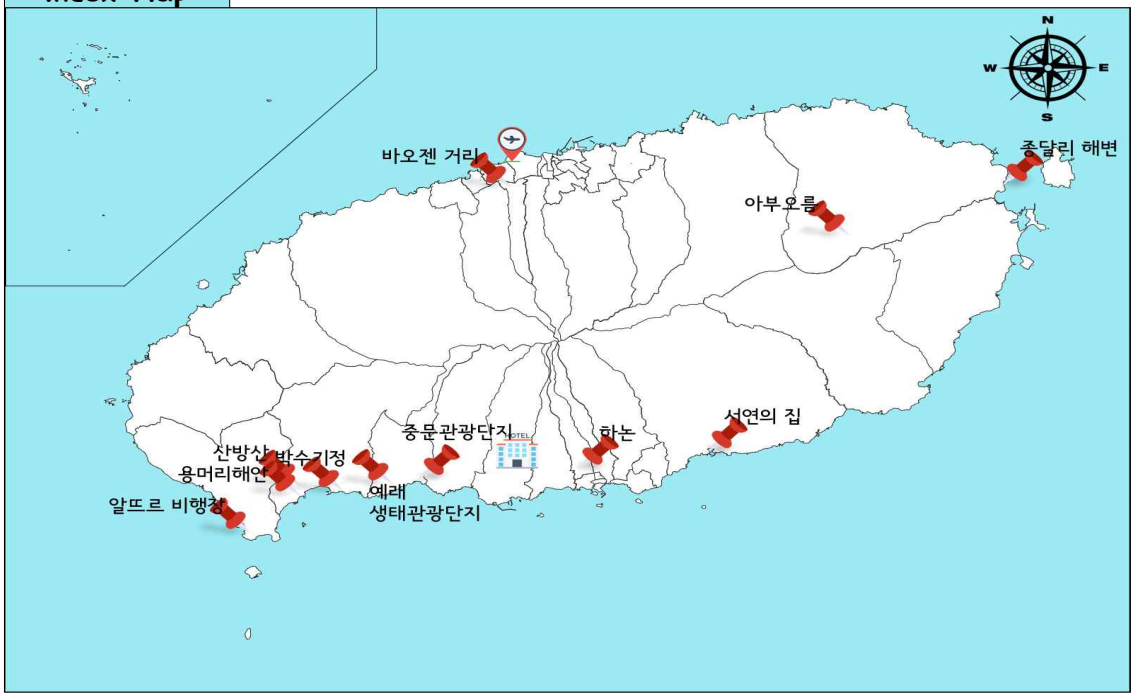
2019 제주도 학술답사

도서지역의 이해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 답사 지역 》

Index Map



《 1일차 》

- 아부오름
- 종달리 해변
- 서연의 집

《 2일차 》

- 중문관광단지
- 예래생태마을
- 박수기정
- 하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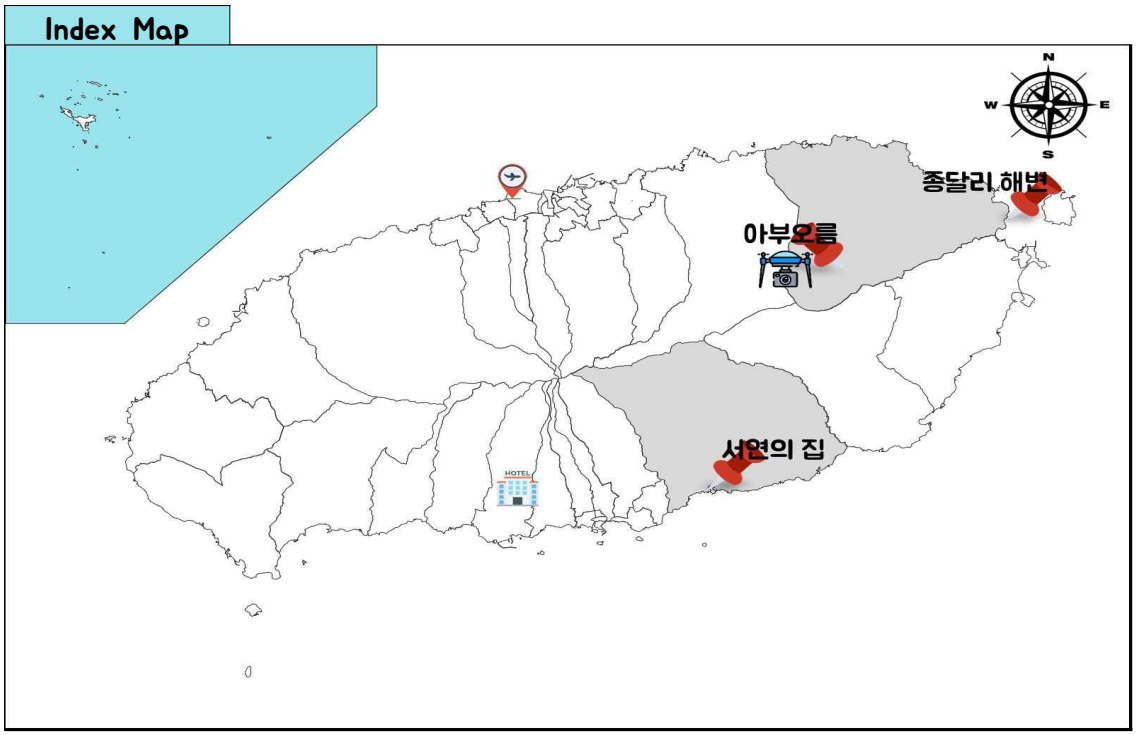
《 3일차 》

- 산방산
- 용머리 해안
- 알뜨르 비행장
- 바오젠 거리

《 답사 일정표 및 목차 》

〈3일차〉
오전 09:00
숙소 출발
오전 09:30
산방산 도착
오후 14:00
종달리 해변 도착
오후 14:30
종달리 마을 도착
오전 10:00
용머리 해안 도착
오후 16:30
서연의 집 도착
오전 10:30
알뜨르 비행장 도착
오전 12:00
아부오름 도착
오후 18:00
숙소 도착
오전 12:00
바오젠 거리 답사
오전 11:30
제주김밥 픽업
오후 18:00
숙소 도착
〈2일차〉
오후 16:00
박수기정 도착
오전 11:00
제주공항 출발
오전 09:00
숙소 출발
오후 14:00
제주시내 자유답사 (~17시)
오후 14:30
예래생태마을 답사
오전 09:30
하논 도착
오전 09:30
대구공항 출발
오후 18:00
제주공항 집결
오전 10:00
중문관광단지 일대 답사
오후 19:10
제주공항 출발
오전 08:30
대구공항 집결

《 답사 1일차 》



▌제주시 구좌읍 ▌ ✎ 아부오름 ✎ 종달리 해변

▌서귀포시 남원읍 ▌ ✎ 서연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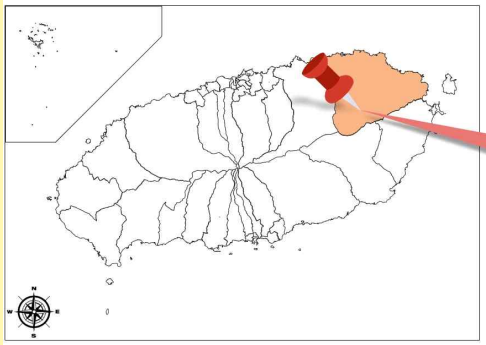
연인의 오름, 아부오름

생각열기

Q. 송당리는 왜 오름의 마을이라고 불리는가?
A. 송당리 소재의 오름이 17개나 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Index Map |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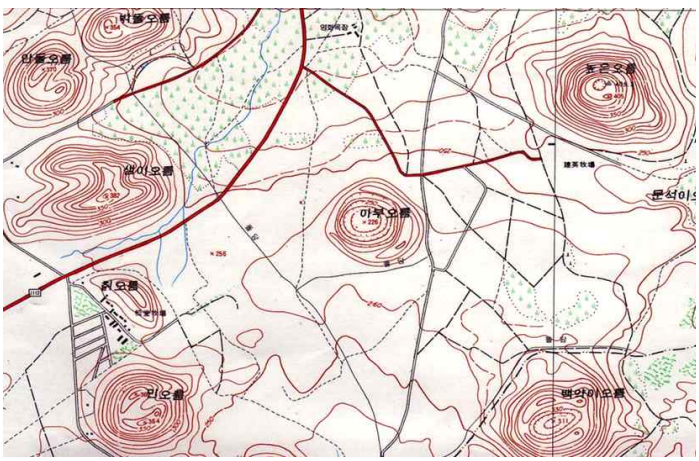
아부오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수리적 위치] 33°26′34″N, 126°46′35″E

Index Map | **개관**



아부오름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다. 송당리는 '오름의 마을'이라 할 정도로 17개의 오름이 산재해 있다. 아부오름은 송당리의 '앞'에 있다고 해서 조선시대 지도에는 전악(前岳)으로 표기되어 있고, '앞' 발음이 변해서 현재 '아부'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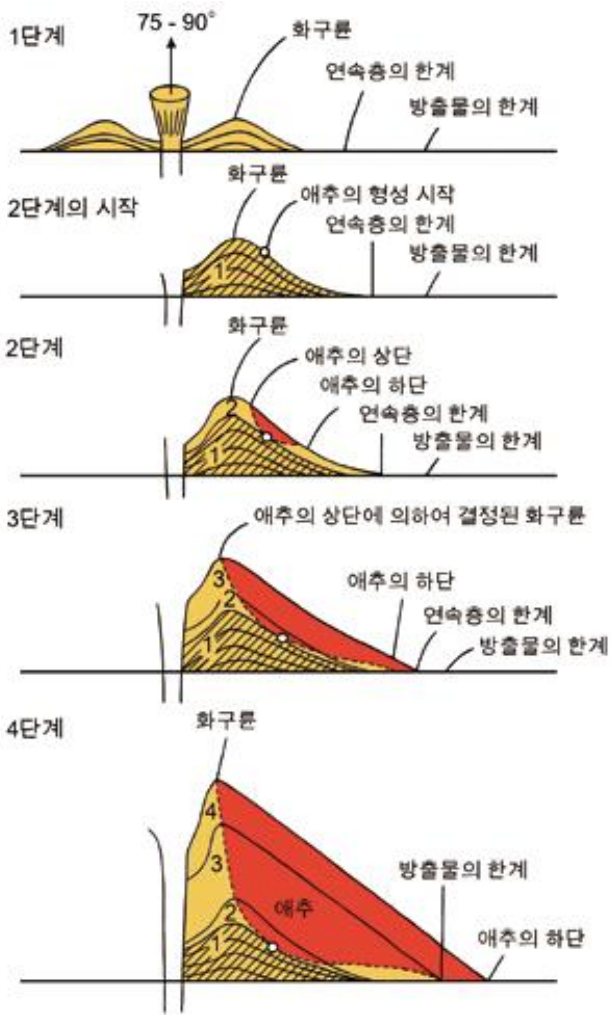
아부오름은 산 자체의 높이가 50m이고, 화구의 깊이는 78m이다. 따라서 산체에 비해 분화구가 큰 오름이다. 화구의 규모는 동서로 500m이고 남북으로는 450m인데, 이러한 연유로 완벽한 원형의 모습을 보여준다. 분화구 주변은 삼나무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에 영화 세트장으로 활용되었다.

출처: 김종철, 1995, 오름나그네.

✍ 더 알아보기

《 오름은 어떻게 형성될까? 》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는 소형화산체를 제주도에서는 오름이라고 부른다. 제주도의 오름은 대부분 스코리아콘(scoria cone)에 해당한다. 구성 물질은 현무암질 마그마로부터 유래한 적색 또는 흑색의 다공질 화산쇄설물인 스코리아이다. 스코리아콘은 현무암질 마그마의 스트롬볼리식 분화에 의해 만들어진 단성화산을 가리킨다.



▲ 스코리아콘의 발달 모델
(출처 : McGetchin 외,1974)

스코리아콘의 성장 과정은 다음과 같다(McGetchin, 1974). 1단계에서는 고도가 높지 않은 환상의 화산체가 나타난다. 2단계에서는 사면의 경사각이 급해져 안식각(angle of repose)에 도달하게 되고, 사면에 떨어진 스코리아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애추를 형성한다. 3단계는 상부로 확대된 애추 사면이 화산체 최상부에 도달함으로써 볼록한 모습의 화구륜이 각진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4단계에서는 하부로 확대된 애추사면이 공중으로 분출된 화산쇄설물의 도달 한계, 즉 날아간 화산쇄설물의 최대 낙하지점까지 도달하게 된다.

출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정보시스템

《 활동지 》

드론사진 촬영

드론팀 촬영(2019.05.22.)

드론사진 촬영

드론팀 촬영(2019.05.22.)

경관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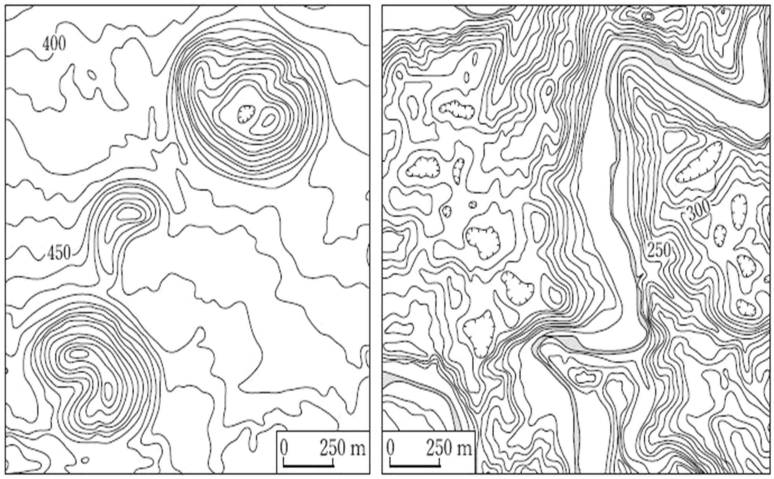
아부오름 외부 전경 사진

아부오름 내부 전경 사진

《 기출 문제 》

16. (가), (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① (가)에는 칼데라호, (나)에는 우각호가 나타난다.
② (가)에는 돌산, (나)에는 주상절리가 잘 나타난다.
③ (가)는 신생대, (나)는 고생대에 형성된 암석이 기반암을 이룬다.
④ (가), (나)에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⑤ (가), (나)에서는 기후의 영향을 받은 적색 토양이 발달한다.

[2017학년도 09월 모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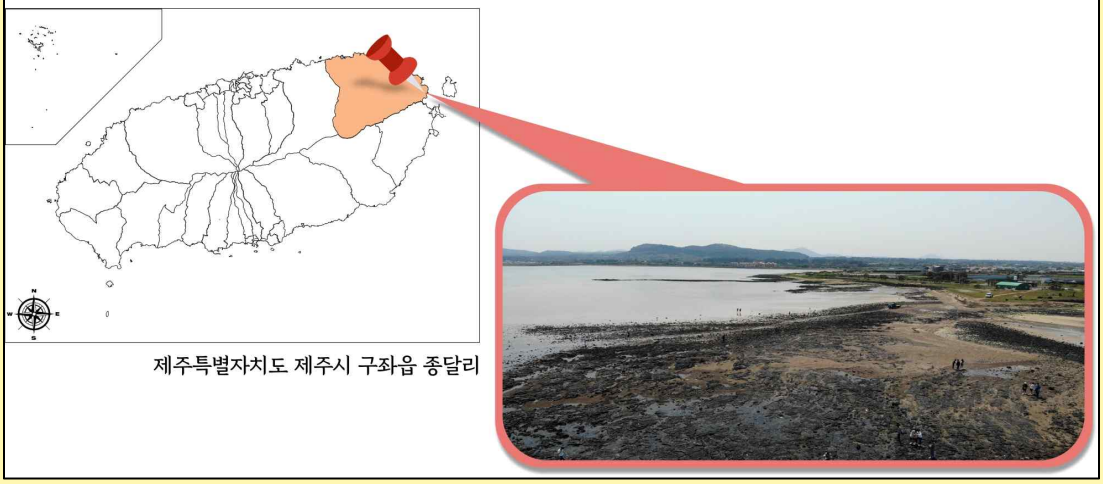
양날의 검, 종달리 해변마을

생각열기

Q. 육지에서 종달리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조용하고 괘적한 삶을 선호하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 위해서다.

Index Map | 개관

종달리 해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수리적 위치] 33.30°N, 126.53°E

Index Map | **개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終達里)는 제주도의 동쪽 끝 마을이다. '종달'이란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끝(終)에 달(達)'하는 땅의 종착점을 의미한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오름이 '땅의 꼬리'를 의미하는 지미봉(地尾峰)이고, 제주도의 서쪽 끝 마을이 시작을 의미하는 '두모리(頭毛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종달을 앞선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종달리는 남쪽으로는 성산일출봉과 직접적인 경계면을 이루고 있으며, 해안선 너머로는 우도(牛島)와 마주보고 있다. 체험어장이 위치한 해안은 지미봉과 식산봉(食山峰)의 헤드랜드사이에 발달한 U자형 해빈(海濱)의 보습을 보인다. 이것의 구성 물질은 대부분 입자가 작은 실트(silt)와 모래의 퇴적물이다. 우도에 의한 외해(外海)의 차단은 앞선 퇴적지형의 발달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출처 : 오정준, 2003,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8(4),

주민 인터뷰

인터뷰 대상자는 마을에 입지한 상업시설을 위주로 선정한다(상업시설은 마을 지도 참고).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는 손님으로 자연스럽게 입장하여 취식 후 인터뷰를 진행한다. 미용실이나 다른 경우는 인터뷰 전화예약 후 가능한 경우만 방문한다.

제주도에서 종달리에 이주한 원인은 이곳이 제주도의 다른 지역과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인가? (혹은, 이주 전, 여행을 통해 종달리에 매력을 느꼈다면 그 이유는 어떤 것인가?)

제주도로 이주해 왔을 때 집은 종달리, 직장은 성산이었다. 그러다 직장(가게)까지 종달리로 옮긴 이유는 성산의 가게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조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옮겨왔다.

이주 초창기와 현재를 비교할 때 관광객 수가 증가/감소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관광객 수가 증가 했다. 그 이유는 한 방송인이 종달리의 한 책방을 방송, SNS에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종달리의 그러한 분위기를 경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 같다.

만약 관광객 수가 증가했다면, 이주민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상관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달리에 와서 찾는 카페나 책방 등이 이곳 현지인들보다는 이주민들이 와서 건설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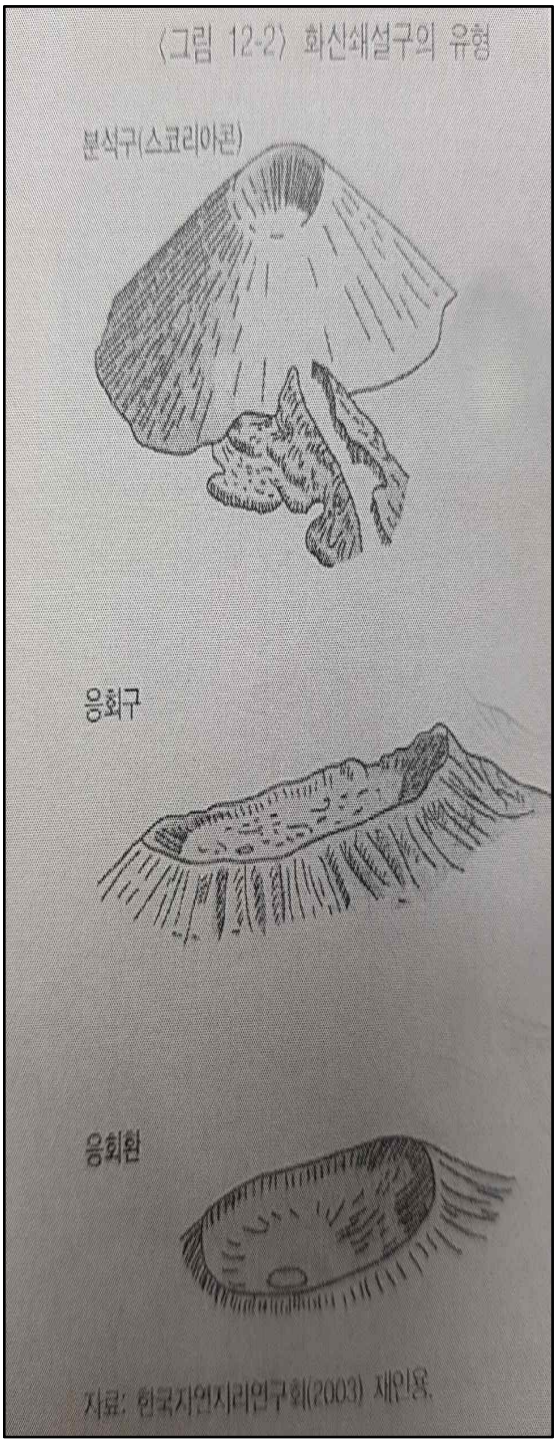
앞으로 종달리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길 바라는가? (이주민의 정착지가 되었으면 하는가? 아니면 관광활성화를 통해 유명 관광지가 되길 바라는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무엇인가?)

더 이상 개발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과거에 있던 염전을 그대로 두었으면 지금의 종달리보다 더욱 경제적으로 발전되었을 것이며,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는데 유명 관광지가 되면 너무 혼잡스러워 질 것 같다.

인터뷰 대상자
성별 : 남 / 나이 : 50대 / 이주시기 : 1990년대 초반 / 직종 : 요식업

✍ 더 알아보기

《 화산쇄설구의 유형 》



스코리아콘: 새 용암이나 기존 암석의 파편만으로 만들어진 원뿔형의 작은 언덕을 말한다. 성층화산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규모는 대체로 훨씬 작고 침식되거나 붕괴되기 쉽다. 제주도 오름은 대부분 스코리아콘이다.

응회구: 수성화산 분출에 의해 높이가 50m 이상이고, 층의 경사가 25° 보다 급한 화산체를 말한다. 성산일출봉이 대표적 예이다.

응회환: 수성화산 분출에 의해 높이가 50m 이하이고, 층의 경사가 25° 보다 완만한 화산체를 말한다. 용머리해안이 대표적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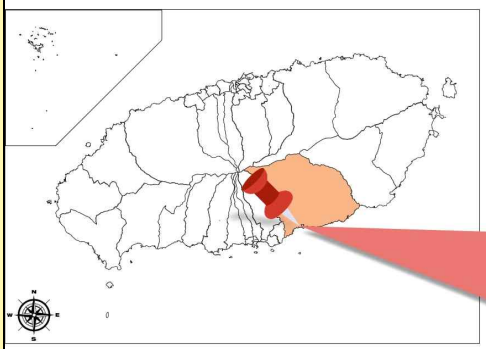
첫 사랑의 기억 서연의 집

생각열기

Q. 관광객들은 서연의 집에서 무엇을 사진 찍고, 어떻게 사진 찍는가?
A. 과거 영화(건축학개론)속에 나온 모습을 같은 구도로 촬영한다.

Index Map | 개관

서연의 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해안로 86

[수리적 위치] 33.16°N, 126.39°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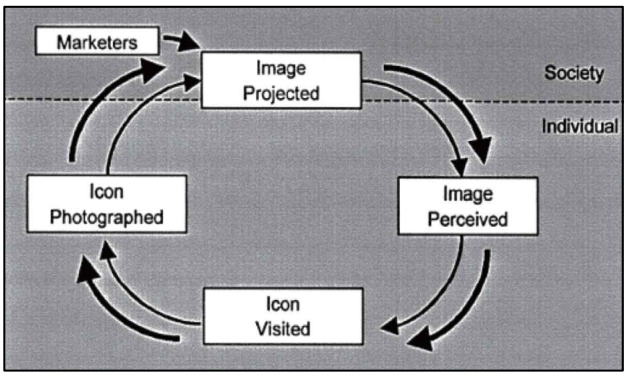
Index Map | **개관**

서연의 집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위치한 카페이다. 원래는 영화 '건축학개론'의 세트장이 있었으나, 철거 후 영화 속 주인공(서연)의 집을 재현하여 카페 '서연의 집'으로 재건축되었다. '서연'은 영화 속 여주인공의 이름이다.

영화의 주요 내용이 제주도에 집을 건축하는 것이기에 많은 장면이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영화상영 이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카페로 재건축된 이후에도 꾸준한 방문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 : 제주관광정보센터

영화 속 '서연의 집'을 가장 유사하게 모방한 공간은 1층의 폴딩도어(folding door)와 2층의 옥상잔디이다. 관광객들은 이 두 공간을 사진으로 재현할 때, 영화 속 장면과 동일한 이미지로 모방(재현)한다. 이를 위해 붐비는 카페 안에서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오로지 폴딩도어와 옥상잔디만을 사진에 포함시킨다. 즉, 영화 속 낭만적인 이미지를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 결과 영화 속 장면과 관광객이 찍은 사진은 프레이밍에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현실의 공간이 영화 속 낭만적 공간으로 스테레오타입화 되는 과정, 즉 이러한 상상의 지리학을 Shield는 '장소신화(place myth)'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매체에서 각인된 이미지를 찾아 장소를 방문하여 다시 사진 찍는 행위를 Jenkins는 '재현의 순환'이라고 명명했다.



◀ 재현의 순환

▲ 영화 속 폴딩도어

▲ 우리(혹은 관광객이)가 찍는 폴딩도어
(이왕혁 촬영, 2019.05.22.)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의 경관사진과 영화 속 스틸 사진, 그리고 홈페이지 및 언론사의 사진들은 유사성을 가진다.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한 이미지들을 관광지에서 찾고, 확인하고, 포착하는 관광객 행동의 기호학적 특성을 이는 설명해준다. 포스트카드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이른바 '재현의 재현'인 셈이다. 따라서 '서연의 집'에서 경관사진을 찍는 관광객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 기호를 소비하는 시각적 실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기에 '눈만 있고, 몸은 없는' 수동적 관광객에 해당된다. 그들은 '환영'을 모방하는 '재현'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로지 '재현의 재현'을 반복할 뿐이다. Larsen(2006)에 의하면 그들은 '죽은 지리(dead geographies)'를 생산하는 '생명 없는 관광객(lifeless tourists)에 불과하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폴딩도어와 옥상잔디를 배경삼아 여행에 동행한 '사랑하는 이'를 뷰파인더에 담는다. 또한 영화 속 주인공을 의식하며 영화와 동일한 장면을 연출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원형에 집착하는 경관사진과 달리, 인물 사진은 똑같이 닮는 걸 포기한다. 폴딩도어에서 인물 사진을 찍는 관광객은 다양한 신체놀이(포즈)에 열중하면서 그들만의 차이를 전개시킨다.

관광객들의 사진수행은 일종의 연극이다. 관광객은 배우이자 연출자이고, 장소는 연기와 연출을 위한 무대다. 이곳에서 배우는 '사랑', '우정', '가족', '자아'라는 대본을 가지고 장면을 연출한다. 신체를 활용한 사진 수행이 시작되면서 무대(서연의 집)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이제 첫사랑 서연의 집은 온데간데없고 그곳은 친구와의 '우정의 장소', 연인과의 '사랑의 장소', 가족과의 '가족애의 장소'로 변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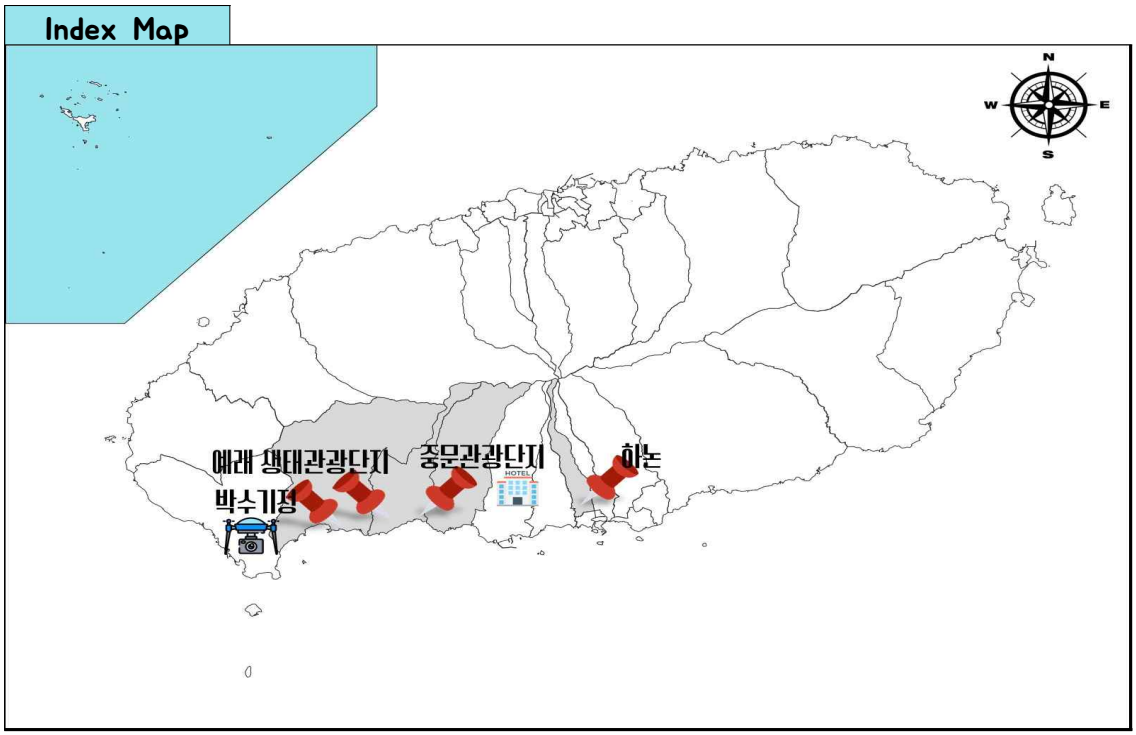
사진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광객들의 순간적 실천은 다수의 행위경관(taskscape)을 구성한다. 그 결과 낭만적 공간의 장소신화는 일정부분 무너져 내린다. 따라서 관광객들은 낭만적인 장소신화를 소비하는 장소의 수동적 소비자라기보다는, 새로운 행위 경관을 창조하는 장소의 적극적인 생산자가 된다. 그들은 '더 이상 생명력 없는', '죽은 지리학'을 소비하지 않는다. '재현의 재현'을 넘어서 '생명력 있는 지리'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재현을 넘어선 관점이 Thrift의 비재현지리학이며, 더 나아가 수행적 전환(performance turn)을 통한 접근이다.

▲ 인물 사진 수행
이승현 촬영(2019.05.22.)

▲ 인물 사진 수행
이승현 촬영(2019.05.22.)

출처 : 오정준, 2015, '재현의 재현'을 넘어선 관광객 사진, 문화역사지리,

《 답사 2일차 》



▌서귀포시 중문동 ▌ ✎ 중문관광단지

▌서귀포시 예래동 ▌ ✎ 예래 생태관광마을

▌서귀포시 안덕면 ▌ ✎ 박수기정

▌서귀포시 서홍동 ▌ ✎ 하논 마르

포디즘 대중관광, 중문관광단지

생각열기

Q. 중문관광단지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인가? 관광객만을 위한 공간인가?
A. 지역주민들보다는 관광객을 우선시하는 공간이다.

Index Map | 개관

중문관광단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수리적 위치] 33.14°N, 126.24°E

Index Map | **개관**

중문관광단지는 서귀포시 중문동, 색달동, 대포동에 걸쳐 있는 종합관광휴양지이다. 이곳은 국가주도로 개발되었다. 한국관광공사의 주도로 197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새로운 시설이 꾸준하게 조성되고 있다. 관광단지의 설립목적은 외화 벌이였지만, 초창기에는 내수용 관광지로 국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관광단지가 지역주민보다는 관광객 편의 위주로 개발된 것이 중문단지의 공간적 특징이다. 이렇게 관광객 편의 위주의 고립된 공간을 관광객 엔클레이브(tourist enclave)라고 한다.

출처 : 중문관광단지 홈페이지, 제주관광정보센터(Visit Jeju)

경관사진 촬영

김선규 촬영(2019.05.23.)

용상민 촬영(2019.05.23.)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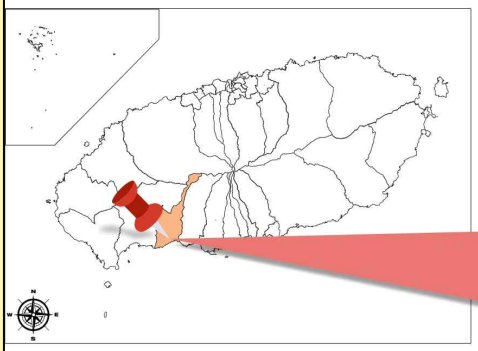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관광의 모델, 예래 마을

생각열기

Q. 중문단지에 인접한 예래동은 관광단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결과로 귀결되었는가?
A. 광광단지로부터 나오는 오폐수 등으로 인한 부정적 피해를 받았고 이를 막기 위해 개발보단 환경을 중요시한 정책을 선호한다.

Index Map | **개관**

예래 생태마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동

[수리적 위치] 33.14°N, 126.23°E

Index Map | **개관**

예래생태마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동에 위치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에 인접한 이곳은 관광단지 관련 혐오시설이 다수 입지함으로써 그것의 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반대운동으로 시작된 주민운동은 예래생태마을 조성으로 이어짐으로써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곳이기도 한다. 제주도 내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가장 잘 표방하는 마을중의 하나이다.

출처: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II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예래생태마을』(예래생태마을위원회, 2007)

경관사진 촬영

김선규 촬영(2019.05.23.)

박사무엘 촬영(2019.05.23.)
논짓물 경관 촬영

오감 활용하기

< 논짓물, 오감으로 답사하기 >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프레임을 작성하자]

● 먼저 이미지를 촬영한다. 놋짓물에 들어가서 인물사진을 찍는다. 인물사진은 본인과 친구(남사친/여사친)의 2명으로 구성한다.

1.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경관을 정확하게 기술하자.
(논짓물의 모습, 보를 기준으로 각각의 색깔, 각각 안의 모습 등)

2. 세수, 발담구기, 해수욕 등을 통해 각각의 온도 차이를 느껴보자. 어디가 더 온도가 낮은가? 여름/겨울에는 어떨 것 같은가? 여름에서 낮/밤으로는 어떤 차이가 나타날 것 같은가?

3. 마시기와 냄새 맡기를 통해 각각의 특징을 기술해보자.

4. 인물사진을 설명한다.

오감 활용하기

< 비전 프레임 활용하기 >

1. 담수부근은 생각보다 깨끗하지는 않았고 색깔은 해수 쪽이 더욱 밝은 색을 띠고 있다.

2. 해수 쪽이 더 차가운 것 같다. 여름에 해수가 더 차가운 것 같고 밤에 더 차가울 것 같다.

3. 해수 쪽 냄새는 바다냄새, 소금기 있는 냄새가 나고 담수 쪽에서는 별다른 냄새를 맡지 못했다.

4. 같이 답사를 온 친구와 다음에는 이성 친구와 이렇게 사진을 찍자고 이야기하면서 찍은 사진이다.

오감 활용하기

내러티브 작성

(교사가 되어) 화산지형 단원에서 위 이미지를 수업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미지와 함께 내러티브를 작성해보자. (setting된 장면을 가지고) 여행기 혹은 일기의 형식으로 서술하자. (단, 용천, 혹은 화산지형 개념을 포함시켜서 서술할 것)

2019 년 7 월 25 일 목요일 날씨 맑음

제목 : 상우 선생님과 함께한 제주도의 용천 사진전

상우와 나는 대학교에서 같은 과를 졸업하고 같은 시기에 임용이 되어 각자의 지역에서 상우는 중학교, 나는 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선생님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는 학생들에게 제주도의 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보여줄 사진자료에 마땅한 것들이 없어 방학을 맞이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경험한 생생한 사진자료를 보여주기 위해 제주도를 방분하기로 했다.

우리들은 제주도에서 사진을 찍기 위한 베이스캠프로 예래동을 선택했다. 그 곳의 숙박집 주인분들께서 예래동에 왔으면 논짓물은 가야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일단 논짓물로 출발하였다.

논짓물을 도착해보니 이 곳은 용천이 나는 곳이였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학생들에게 알려줄 화산지형의 특징 중 화산섬이 제주도의 지표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때 이 곳의 사진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제주도는 화산섬이라는 기반암의 특징 때문에 지표에 물이 부족한데 이 곳은 용천수가 나와 다른 곳보다 용수가 취득이 쉽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장소로 이 곳의 사진을 찍어갔다.

또한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신기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상우는 담수와 해수의 차이에 대해서 중학교 학생들에게 설명해줄 때 이 곳의 사진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이 곳의 물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사진을 찍었다..

첫 날은 예래동의 논짓물에서 학생들에게 알려줄 이론과 사진들을 연결시킬 방법을 생각하면서 마무리하였다.

《 기출 문제 》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 (가), (나)는 관광을 활용한 지역 개발 사례이다.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징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1970년대 후반부터 □□□시 ○○동 일대에는 국제 수준의 관광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기반 시설 건설에 투자하고, 한국관광공사는 개발 사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했으며, 숙박 시설과 상업 시설 등은 민간 부문에 의해 개발되었다.
>
> (나) □□□시 △△동에서는 생태 마을 체험 축제가 개최된다. 축제의 목적은 마을의 생태 자원을 관광객에게 개방함으로써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태 자원을 보전하는 데 있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 성대한 개회식은 지양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① 투입된 자본의 규모가 클 것이다.
② 파생되는 일자리의 수가 많을 것이다.
③ 관광 시설의 수가 많고, 규모가 클 것이다.
④ 방문 및 투숙하는 관광객의 수가 많을 것이다.
⑤ 지역 주민이 개발의 주체로서, 참여 정도가 높을 것이다.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마당 기출문제(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주의 숨겨진 비경을 찾아라, 박수기정

생각열기

Q. 해식애와 해안단구는 어떤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A. 해식애와 해안단구가 모두가 한 프레임에 들어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찍는다.

Index Map | 개관

박수기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수리적 위치] 33.14°N, 126.21°E

Index Map | **개관**

박수기정은 제주 서귀포시 대평리와 화순리 사이에 위치한 해식애로, 수직으로 꺾여있는 벼랑의 높이는 약 100m에 이른다. 주상절리가 발달하였으며 해식애 위에 형성된 해안단구에서는 밭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박수기정은 샘물을 뜻하는 박수와 절벽을 뜻하는 기정이 합쳐져 바가지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샘물이 솟아나는 절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샘물은 용천수로, 주상절리가 발달한 용암층 밑에 있는 응회암층이 불투수층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박수기정' 해안은 페퍼라이트'(peperite)라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1]. 박수기정의 기반암은 크게 하부 응회암 수평층과 상부 조면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박수기정의 지형발달은 기반암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대적으로 응회암은 무른 연암이고, 조면암류는 경암이어서 풍화·침식이 진행될 때 상부 조면암류가 하부 응회암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거대한 병풍절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조면암에 발달한 주상절리도 절벽지형을 만드는 데 한몫했다.

출처: 드론의 경관지형학 제주

1) 굳어지지 않은 축축한 퇴적물과 용암이나 마그마 파쇄물이 혼합되면서 형성된 암석

《 활동지 》

드론사진 촬영

드론팀 촬영(2019.05.23.)

드론사진 촬영

드론팀 촬영(2019.05.23.)

한국의 유일무이한 마르, 하논

생각열기

Q. 하논에서 논농사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A. 분화구 내가 평탄하고 용천수가 나와서 용수 획득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Index Map | 개관

하논 마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호근동

[수리적 위치] 33.15°N, 126.32°E

Index Map | **개관**

하논은 서귀포시 호근동과 서홍동 경계에 위치한 분화구이다. 동서 1.8㎞, 남북 1.3㎞에 이르는 타원형 화산체로서, 높이는 88m이다. 하논이란 한 논, 다시 말해 큰 논이라는 뜻이다.

하논은 한반도 유일의 마르형 분화구이다[2]. 하논은 마르형 응회환의 화구 바닥으로서 평탄하고 용천수가 나오기에 현재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분화구 내 습지 퇴적층에는 환경과 기후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하는 다양한 퇴적물이 지속적으로 유입·집적되어 '기후 및 환경 기록보존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출처 : 손일, 앵글 속 지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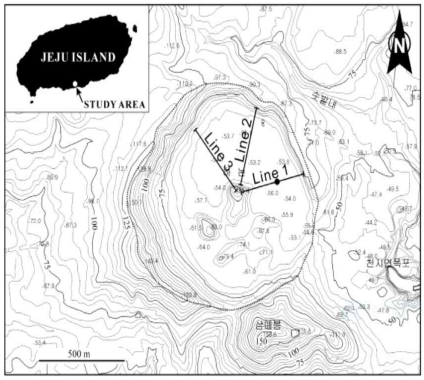
2) 화구의 규모에 비해 화구륜, 즉 분화구 외륜산의 높이가 낮은 화산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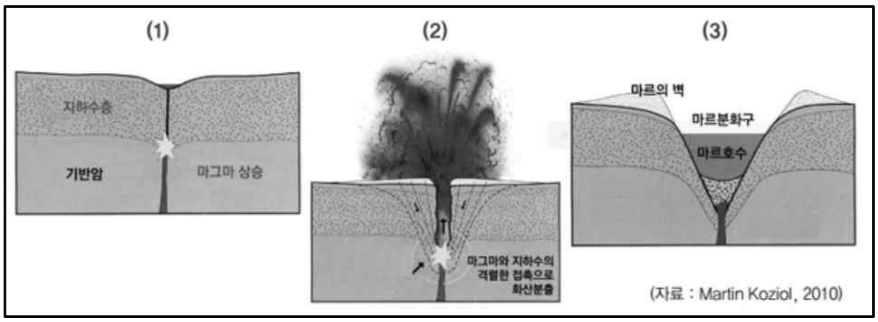
《 하논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

하논은 마그마와 지하수가 접촉해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 형성되었다. 마르형 분화구는 용암이나 화산재 분출 없이 지하 깊은 땅속의 가스 또는 증기가 지각의 틈을 따라 한 군데로 모여 한 번에 폭발하여 생성된 분화구를 말한다. 이곳의 분화구는 주위에 비해 높이가 낮으며, 분화구 내에 샘이 존재하고, 비가 올 경우 물이 고인다. 깊이에 비해 직경이 크며, 폭발에 의해 생겨난 쇄설물들이 퇴적되어 언덕을 이룬다.

하논 분화구 내에는 2차적으로 형성된 화구구인 '보롬이'가 중앙부에 위치해 있다. 마그마성 분출물로 구성된 보롬이의 존재는 하논 분화구가 형성된 이후 또 다른 분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하논은 이중화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하논 지형도 》



《 마르형 분화구 생성과정 》

출처 : 하논분화구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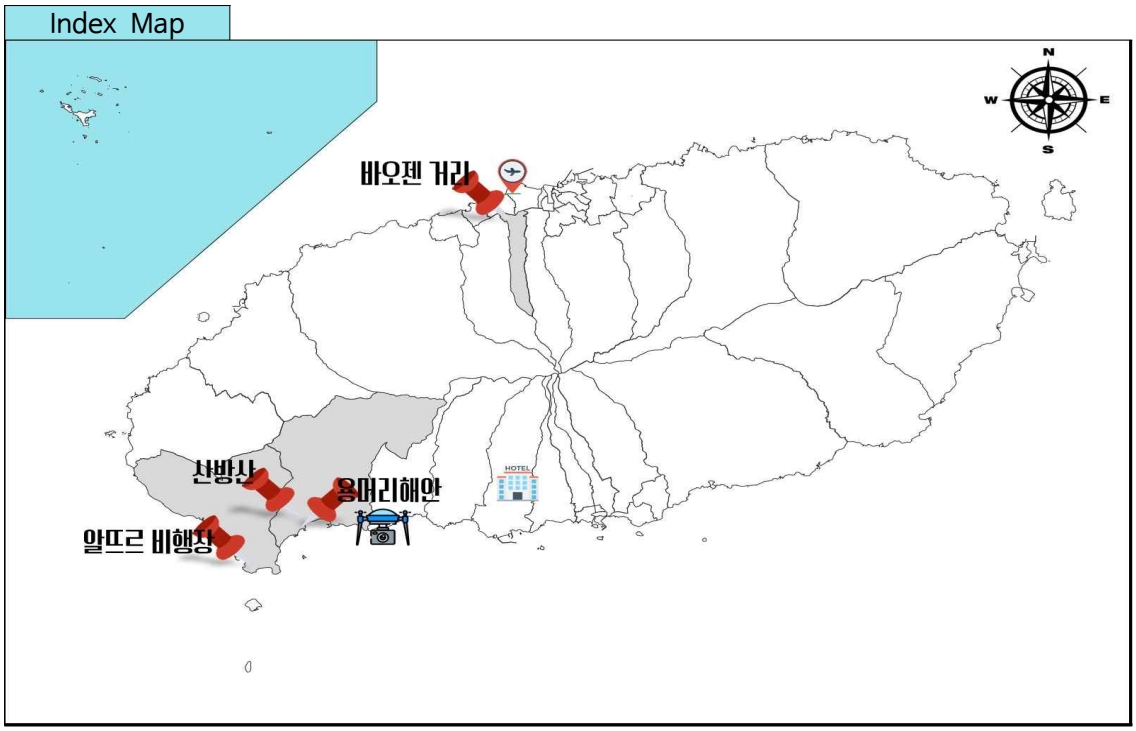
《 활동지 》

경관사진 촬영

김선규 촬영(2019.05.23.)
표시한 부분이 이중화산 '보롬이'

김선규 촬영(2019.05.23.)

《 답사 3일차 》



▌서귀포시 안덕면 ▌ ✎ 산방산 ✎ 용머리 해안

▌서귀포시 대정읍 ▌ ✎ 알뜨르 비행장

▌제 주 시 연 동 ▌ ✎ 바오젠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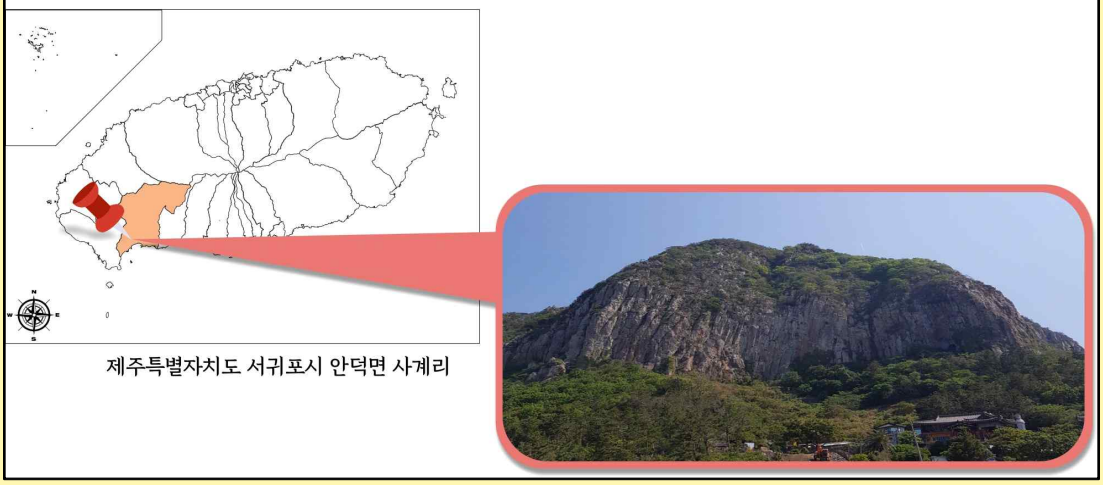
한라산 봉우리의 데칼코마니, 산방산

생각열기

Q. 산방산과 가장 유사한 제주도의 분화구는 무엇인가?
A. 조면암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한라산 봉우리와 유사하다.

Index Map | 개관 | 형성과정

산방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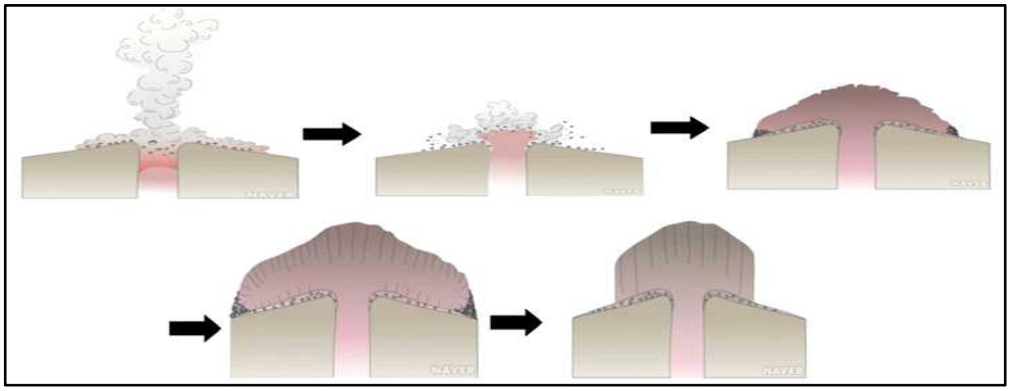
[수리적 위치] 33.14°N, 126.18°E

Index Map | **개관** | 형성과정

산방산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안에 위치해 있다. 조면암질 안산암으로 구성된 종상화산으로 높이 395m이고 면적은 1,003,165.7㎡이다. 지름은 약 1,200m로 제주도에 발달한 다른 화산과는 달리 정상에 분화구가 없고 돔 모양의 모습을 띈 절벽을 이루고 있다. 남측 절벽의 높이 150~300m 사이에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풍화혈과 애추가 발달되어 있고, 해발 150m쯤에는 해식동굴(산방굴)이 바다를 향해 존재한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주관광정보센터(Visit Jeju), 대한민국 구석구석

산방산은 80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 용머리 응회환에 비해 늦게 형성된 셈이다. 형성과정에서 화산분출물이 용암돔 주변에 쌓였고, 돔에는 부채꼴 모양으로 방사상의 주상절리가 형성됐다. 돔의 가장자리는 침식으로 깎여 나가고 현재는 수직의 주상절리가 형성되어 있는 돔의 중앙 부분만 남아 현재 산방산이 되었다.



출처 : 박기화, 2013, 제주도 지질여행

《 활동지 》

경관사진 촬영

제시된 조망지점(view point)에서 경관사진 찍기

먼저, 지도를 통해 조망지점을 예측하고, 제시된 조망 지점에 도착하여 대상 사진을 찍는다. 4개 조로 편성하여, 서로 다른 지점에서 출발하여 활동지를 완성한다. (용머리 해안과 함께 활동하며, 시간은 약 90분~120분 소요된다.)

① 산방산 남쪽 주차장에서 바라본 경관으로서, 가장 잘 알려진 산방산 경관이다. 주상절리가 발달한 수직암벽이 잘 관찰된다.

제주의 숨은 비경, 용머리해안

생각열기

Q. 용머리 해안과 산방산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A. 산방산 형성 초기에 분출로 인해 만들어진 화산쇄설층이 용머리응회환을 덮고 있다.

Index Map | 개관

용머리 해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수리적 위치] 33.13°N, 126.18°E

Index Map | **개관**

용머리 해안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다. 이는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 지형 중의 하나로서 응회환의 모습을 보이는 수성화산체이다. 마치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용머리해안으로 불린다. 오랜 세월 만들어진 사암층 암벽이 파도에 깎여 해식애를 이루고 있으며 단애면의 하부에는 노치(notch)가 있고, 상부에는 타포니가 나타난다. 해식애 앞쪽으로는 파식대가 발달하여 용머리해안의 탐방로 역할을 하고 있다.

용머리 화산체는 하나의 분화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화산체가가 아니라 제주도 지반이 연약해 화도가 이동하는 화쇄난류에 의해 차례로 분출한 결과, 인근에 소재하는 단산도 응회환과 응회구(tuff cone)가 결합된 불규칙한 형태의 화산체로, 세 개의 수성화산이 결합되어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풍화와 침식에 노출되어 원래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참고 : 권동희, 드론의 경관지형학

《 활동지 》

안내판 고치기

[용머리 응회환의 퇴적작용]

“용머리는 수성화산활동에 의해 터져 나온 화산쇄설물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응회환이다. 화구에서 터져 나온 화산쇄설물은 대부분 화산가스나 수증기와 뒤섞여 빠르고 격렬하게 흘러가다가 쌓였다. 이런 현상을 화쇄난류라고 하는데, 화쇄난류에 의해 쌓인 층은 용머리에서 보듯이 층리가 잘 발달해 있으며 종종 파동층리나 거대연흔사층리 등의 퇴적구조를 보여준다. 간혹 화산 쇄설물과 바닷물로 이루어진 반죽이 화구로부터 넘쳐흘러 렌즈 모양의 쇄설류 층이 쌓이기도 하였다. 용머리는 분출 당시 화구 주변과 지하에 물이 풍부하여 다량의 물이 화구로 흘러들며 수성화산분출이 일어났다.”

안내판 고치기

관광안내판이 너무 어렵다!

앞선 '용머리 응회환의 퇴적작용' 안내판은 제목과 내용이 매우 어렵게 진술되어 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 내용 등을 쉽고 명료하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지리적인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러기에 전설과 같은 비과학적인 내용을 지양하고, 과학적인 내용으로만 진술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 안내판을 재구성하되, 언제 만들어졌는가? 응회환이란 무엇인가? 어떤 요인으로 용머리의 모양을 하고 있는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쉽게 진술하면 된다.

〈안내판 수정하기〉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포함한 화산지형들은 대부분 신생대에 만들어졌다. 마그마나 용암이 급히 식으면서 물을 끓게 하는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 다량의 수증기를 함유한 큰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수성화산분출'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지형의 유형 중 하나이며 높이50m이하이며 완만한 경사를 지닌 지형을 '응회환' 이라고 한다. 용머리해안은 이러한 수성화산활동에 의해 터져 나온 화산쇄설물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응회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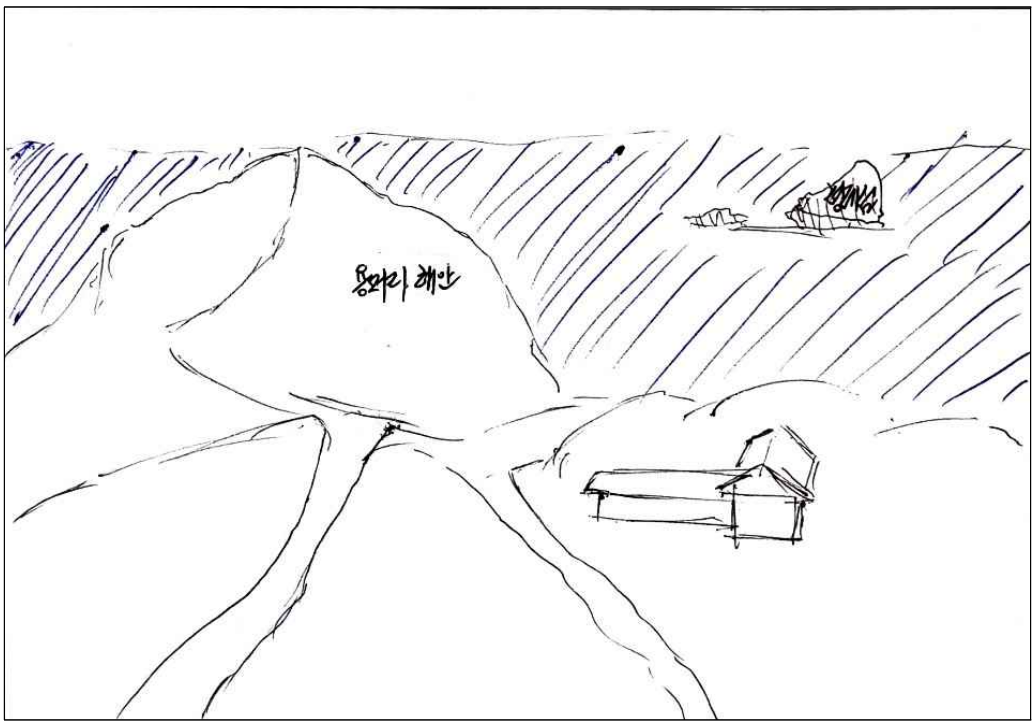
길이는 600m이며 높이는 20m,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머리해안은 화산쇄설물이 겹겹이 쌓여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뚜렷하게 나뉜 층을 잘 볼 수가 있으며 그 외에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식동굴과 수직절리단층을 볼 수 있다.

경관사진 촬영

제시된 조망지점(view point)에서 경관사진 찍기

산방산과 똑같은 활동을 진행하나, 용머리의 경우는 제시된 설명을 통해 상상력을 발휘하여 사전에 스케치 해본다. 사진 찍은 후, 사전에 작성된 스케치와 비교해본다.

① 산방산 주차장(응회환 북쪽)에서 용머리 해안을 바라보는 경관이다. 한눈에 용머리 응회환의 윤곽을 관찰할 수 있다. 남쪽의 해안을 향해 길게 발달한 용머리해안은 과거 응회환의 화구륜에 해당한다. 동쪽의 해안은 서쪽의 해안에 비해 급경사의 해식애가 잘 발달한다. 구도상으로는 응회환으로 접근하는 목책로를 볼 수 있고, 응회환 너머로 바다가 펼쳐져 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섬도 바다 너머로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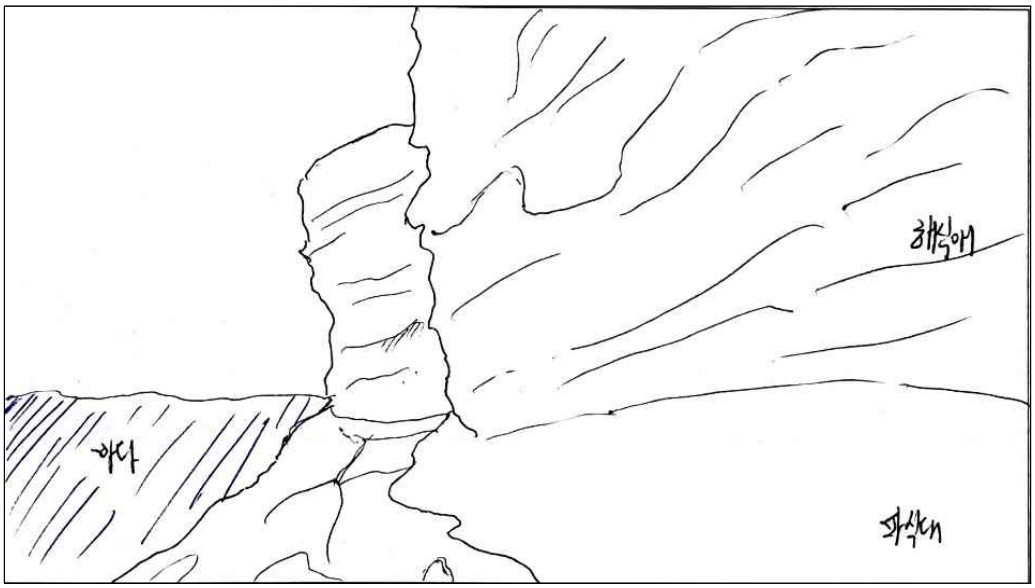


▲ 북쪽에서 바라본 용머리 해안 (스케치)-김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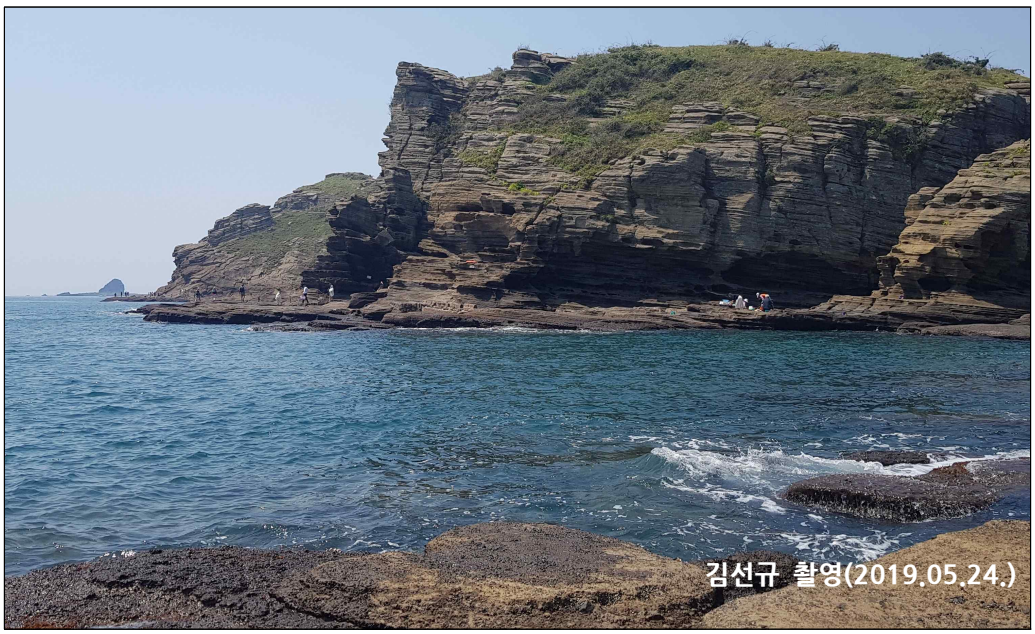
김선규 촬영(2019.05.24.)

경관사진 촬영

② 산방산을 등지고 용머리 동쪽 해안가로 내려가 해안가의 파식대에서 바라 본 용머리 해안이다. 서쪽 해안에 비해 평탄한 파식대가 넓게 발달해 있다. 파식대 위에 용머리 해안이 해안으로 돌출된 형태이다. 구도상으로 보면 중앙에 파식대, 그 위에 용머리가 얹어져 있고, 좌측에 해안이 나타난다. 이곳은 퇴적층 구조도 잘 나타나며, 해식애, 타포니가 한눈에 관찰된다.



▲ 북동쪽에서 바라본 용머리 해안 (스케치)-김선규



경관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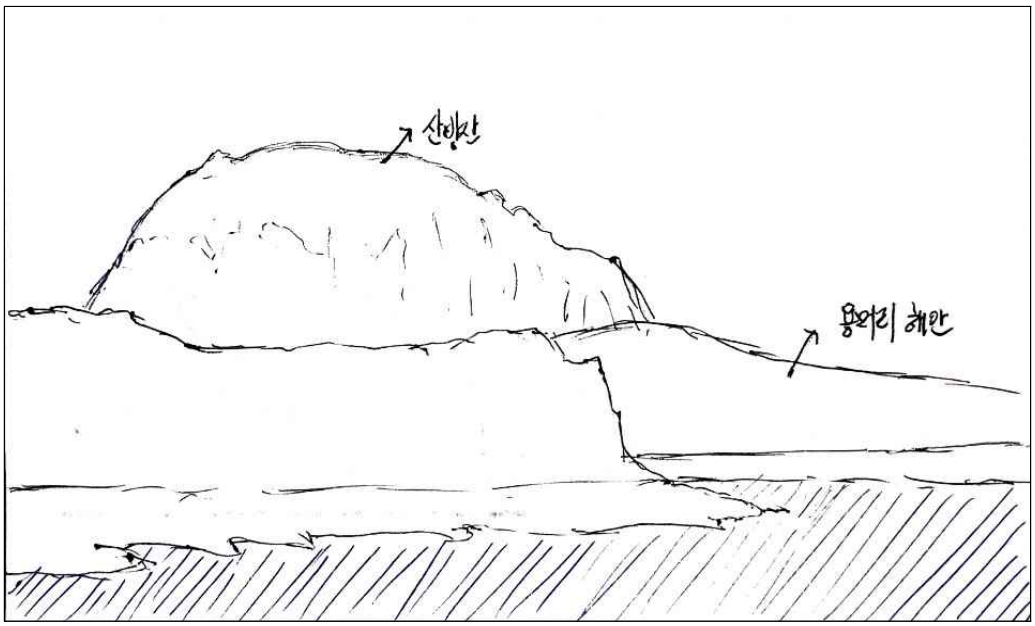
②-1 이곳에서는 파식대 상의 마린 포트홀과 타포니 경관을 관찰할 수 있다. 파식대 상의 마린 포트홀은 발달 초기의 형태인 접시형이지만, 규모는 상당히 큰 편이다. 해식애에 발달한 타포니 일부는 만조 시 파식대와의 경계부에도 발달해 있어 노치(notch)의 성격도 갖고 있다.

김선규 촬영(2019.05.24.)

김선규 촬영(2019.05.24.)

경관사진 촬영

③ 서쪽에서 바라본 용머리해안이다. 반대쪽에 비해 파식대 발달이 미약하고, 해식애가 잘 발달되어 있다. 서쪽으로 더 멀리 가서 제주올레길 10코스에서 조망하면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구도상으로 보면 좌측에 산방산이 높게 솟아있고, 우측에 용머리가 나타난다.



▲ 서쪽에서 바라본 용머리 해안(스케치)-김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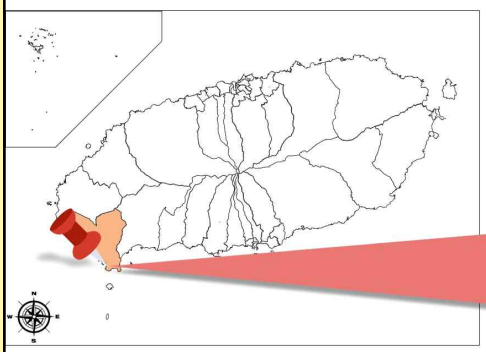
가슴 아픈 역사 알뜨르 비행장

생각열기

Q. 다크투어리즘과 알뜨르 비행장이 연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일제 강점기시기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타 지역보다 더욱 수탈된 흔적이기 때문이다.

Index Map | 개관

알뜨르 비행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수리적 위치] 33.12°N, 126.16°E

Index Map | **개관**

알뜨르 비행장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다. 알뜨르는 '아래 벌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곳은 일제 때 비행장이 있었는데, 현재 제주국제공항으로 쓰이는 정뜨르 비행장과 함께 일제가 조성한 주요 군사시설 중 하나이다.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제주관광정보센터(Visit Jeju)

✍ 더 알아보기

《 알뜨르와 일제강점기 》

《알뜨르 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항공기지와 폭격지점》

알뜨르 비행장은 일본군이 만든 해군 비행기지로 활주로, 격납고, 지하벙커, 고사포 진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곳은 공항으로서의 입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바다와 가깝고, 주변이 넓고 평탄하다.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가 처음으로 만든 비행장이지만, 정뜨르 비행장에 비해 활용도는 낮았다. 해군 항공대가 주둔하려는 목적보다는 항공기의 이동 중 필요에 따라 임시로 기착을 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로 인해 '제주도 비행기 불시 착륙장'이 조성됐다.

1920년대 중반부터 모슬포 지역의 주민들을 동원하여 활주로를 비롯한 비행기 격납고와 탄약고 등을 10년에 걸쳐 세웠는데, 후에 다시 한 번 더 확장을 하게 된다. 중일전쟁을 벌였던 일본은 알뜨르를 전쟁의 전초 기지로 삼았고, 일본에서 이곳으로 날아온 비행기가 주유를 하면 상하이, 베이징, 난징까지 공습 가능하였다고 한다.

출처 : 정주연, 이혜은, 2013, 알뜨르 비행장이 갖는 지리적 의미에 관한 연구.

경관사진 촬영

김선규 촬영(2019.05.24.)

박사무엘 촬영(2019.0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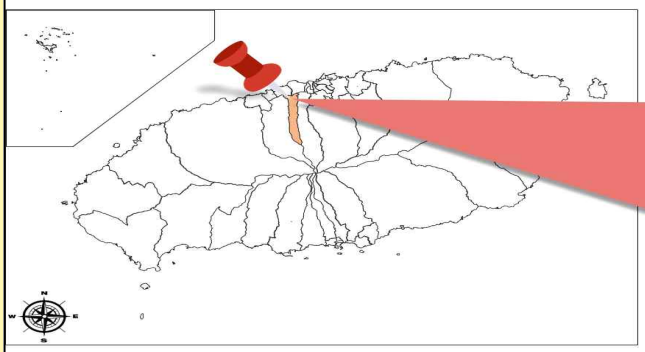
바오젠 거리, 제주산 젠트리피케이션

생각열기

Q.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A. 집약적으로 관광시설이 발달되어 있고 색다른 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Index Map | 개관

바오젠 거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수리적 위치] 33.29°N, 126.29°E

Index Map | **개관**

바오젠 거리는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다. 기존에는 제주주민들이 이용하는 상점들이 많았으나 중국인 관광객이 대량으로 방문하자 그들 기호에 맞춰 변화되었다. 과거 제주의 로데오 거리였던 이곳은 2011년 중국 기업인 바오젠 그룹 직원이 대규모로 방문한 이후, 중국 관광객이 대규모로 방문하면서 거리 이름을 바꿨다. 상권이 확장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는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사드 배치로 도로명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고, 제주도에서는 한 달간 명칭 공모를 실시하여 현재의 이름인 누웨마루거리로 지정했다.

출처 : 연합뉴스

✍ 더 알아보기

《 바오젠 거리의 몰락 '적나라한 제주 관광 현주소' 》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제주 속 작은 중국'이라 일컬어졌던 '바오젠 거리'가 '누웨마루 거리'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뀐지 1년이 지났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들의 발길이 끊긴 거리는 이름을 바꿔 단 뒤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을까.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 1년 전 화려한 레드카펫을 깔고 거리 선포식이 열렸던 장소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적막감이 감돌았다. (중략) 중국인들이 반드시 찾는 '관광 명소'로 떠오르면서 상가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뛰고, 기존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 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한때 중국인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화장품 가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년 넘게 화장품 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국인 A(23)씨는 "과거 하루 매출이 700~80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100~200만원까지 줄었다"며 "이마저도 가끔 들르는 중국인 관광객 덕분"이라고 말했다.

A씨는 "거리 명칭이 바뀌었다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베트남과 중동 국적 관광객이 가끔 보일 뿐이다"며 "주변에서는 이제 상권이 죽었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bjc@yna.co.kr

출처 : 바오젠 거리의 몰락 "적나라한 제주 관광 현주소",

경관사진 촬영

김선규 촬영(2019.05.24.)
해산물을 판매하는 가게

김선규 촬영(2019.05.24.)
마트와 옷을 판매하는 가게

[부록 1]

《 자유답사, 제주 핫플 어디까지 가봤니? 》

(일시 : 2019.05.24. 13:00~17:00, 장소 : 제주 시내 일대)

1. 제주 시내에서 자유롭게 방문하고 싶은 장소가 어디인가요? 그곳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이 장소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나요?

(계획서 작성)-김선규

SNS(인스타그램)와 네이버 검색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수집한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를 찾아내고 고민 끝에 인기 있는 식당 한 곳과 카페 한 곳을 찾아가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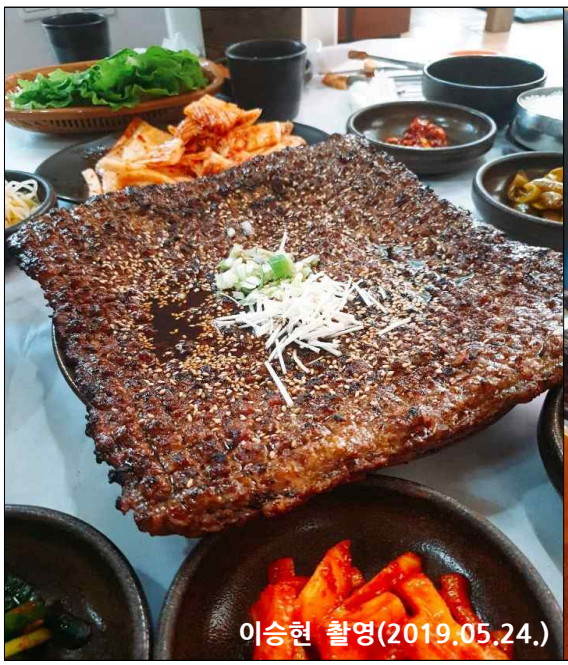
식당은 '수복강녕'이라는 한정식 집이며 리뷰 집계는 확실하지 않으나 카카오 맵이라는 지도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바 105개의 리뷰, 5점 만점에 4.6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게이다. 떡갈비를 주로 메뉴에 올라와 있다. 카페는 'Base Note'라는 카페인데, 평점은 4점/5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SNS나 블로그에도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잘 나타나고 있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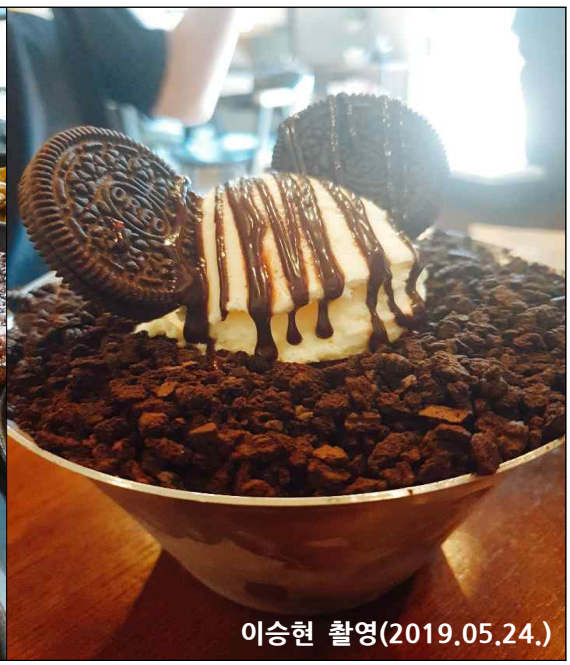
처음 방문을 할 곳은 '수복강녕'이라는 한정식 집이다. 이 가게는 부부 두 명이서 운영하고 있으며, 메뉴는 국내산 돼지 떡갈비 정식과 국내산 한우 떡갈비 형식이다. 각각 12,000원과 15.000원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돼지 떡갈비 정식으로 5인분을 주문을 하였고 또한 해당 가게가 일반 가정집을 개조했다는 점을 참고하여 본래의 집구조가 어땠을지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Base Note' 커피 전문점이다. 이곳은 일반적인 카페와 비슷한 메뉴구성이여서 딱히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빙수를 판매한다는 정보를 알고 난 후 빙수를 먹으려 한다. 로드뷰를 통해 살펴본 주변 경관은 흔히 '감성적'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따라서 해당 거리에 이러한 카페가 덩그러니 놓인 원인을 탐색해 보고, 매출을 높은 편인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관한 의문을 해결해보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다.

2. 방문한 장소의 사진을 찍고, 그 장소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승현 촬영(2019.05.24.)


이승현 촬영(2019.05.24.)


이승현 촬영(2019.05.24.)

(보고서 작성)-김선규

계획에 따라 처음 방문한 곳은 '수복강녕'이라는 한정식 집이었다. 수제 떡갈비였기 때문에 하루에 준비된 수량만을 판매하는 문구가 있었다. 운이 좋게도 재료가 소진되기 전에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떡갈비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조리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집을 둘러보고 관찰한 결과 가정집 구조를 그대로 가져다 놓았다.

외관부터 내부까지 당장 테이블만 치우면, 가정집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똑같았다. 총 2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가족사진이 걸린 것, POS기가 없는 것 등을 통해 음식집보단 정겨운 장소라는 생각을 들게 하였다. 음식은 정갈했으며 인위적인 맛도 적어 정말 가정식을 먹는 듯 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Base Note'라는 카페였다. 주변에는 일반 음식점이나 주택이 들어왔는데 이 가게만 유독 감성을 자극하는 장소였다. 왜 이곳에 카페가 놓이게 된 것인지는 가게 주인이 불친절한 탓에 묻지 못했으나 제주시내와 다소 떨어진 거리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지가가 싸지 않았을까하는 추측을 해보았다. 가게주인과는 상반되게 빙수는 맛있었고 시원했다.

위 두 가게는 제주시내의 중국인 거리인 바오젠 거리(현, 누웨마루 거리)와 약 1km 떨어진 곳이다. 짧은 거리였으나 느낄 수 있었던 점은 시내에 가까울수록 '임대'가 붙은 가게가 많은데 멀어지니 오히려 잘 운영되는 식당이 많이 보였다. 아마 '바오젠 거리'로 명명되며 투자가 어느정도 이루어졌지만 급속도로 쇠퇴하다 보니 높아진 임대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요인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바오젠 거리를 제주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불릴만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당신이 방문한 장소가 매체(인터넷, SNS 등)를 통해 이미 접한 장소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대상을 사진 찍었다면 이것은 재현의 순환이다. 당신은 장소의 단순 소비자일 뿐이다.

■ 그러나 이후에 신체를 통한 다양한 실천과 수행을 한다면 당신의 신체는 행위경관으로 승화되고, 이는 새로운 장소 정체성을 창조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일시적으로) 장소의 공동생산자가 된다.

[부록 2]

《 제주 십자말풀이 》

	1) 송	당		2) 중	문	관	광	단	지		
	이			국							
			3) 군						4) 순		
			산						상		
	3) 성	산	일	출	봉		4) 종	상	화	산	
			출						산		
			제								
				5) 연		6) 용	머	리	6) 해	안	
				북					안		
	5) 박	수	기	정					단		
									구		

《 가로 》

1) 분화구 바닥에 삼나무 검은 테를 두른 아부오름은 북제주군 구좌읍 ○○리에 위치한 작은 오름이다.
2)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한국관광공사가 1978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 대포, 색달동 일원에 조성하였으며, 서귀포시 중문동, 색달동, 대포동에 걸쳐 있는 종합관광휴양지이다.
3) 고도173m의 수성화산체로 정상에는 약 8만평의 분화구가 있으며 99개의 봉우리가 형성되어 있다. 거대한 성의 모습과 해가 뜨는 경관이 장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4) 점성이 강한 용암이 지표로 분출하여 종을 엎은 모양과 같이 생긴 화산으로 다른 말로는 용암원정구라고도 한다.
5) 대평포구와 화순항사이에 있는 해안절벽지대이다. 페퍼라이트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가지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샘물이 솟아나는 절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6) 천연기념물 제 526호로 산방산 앞쪽 해안으로 길게 용의 머리처럼 돌출된 화산체를 말한다. 약 120만 년 전 형성된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 중 하나이다.

《 세로 》

1) 제주도의 오름은 대부분 스코리아콘(scoria cone)에 해당한다. 구성 물질은 현무암질 마그마로부터 유래한 적색 또는 흑색의 다공질 화산쇄설물인 스코리아이다. 이를 제주도에서는 '○○'라고 부른다.
2) 아시아 동부에 있는 나라로 세계 최대의 인구와 광대한 국토를 가졌으며, 1949년 10월 1일 수립된 사회주의체제의 인민공화국
3) 매년 1월 1일 새벽에 서귀포시 주최로 열리는 해맞이 축제
4) 움직임이 큰 용암이 완만하고 엷게 널리 퍼져서 폭발활동에 의한 화산쇄설물은 매우 적은 양 밖에 나오지 않아 경사가 완만한 화산. 아스피테라고도 한다.
5) 제주로 파견된 관리 또는 유배인이 고향과 임금이 있는 북녘 한양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래던 정자이다.
6) 해안 연변을 따라 분포하는 대지상 또는 계단상의 지형이며 지반이 융기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지형

[부록 3]

《음식의 지리학》

1. 제주도 현지 음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보자? (대중화된 음식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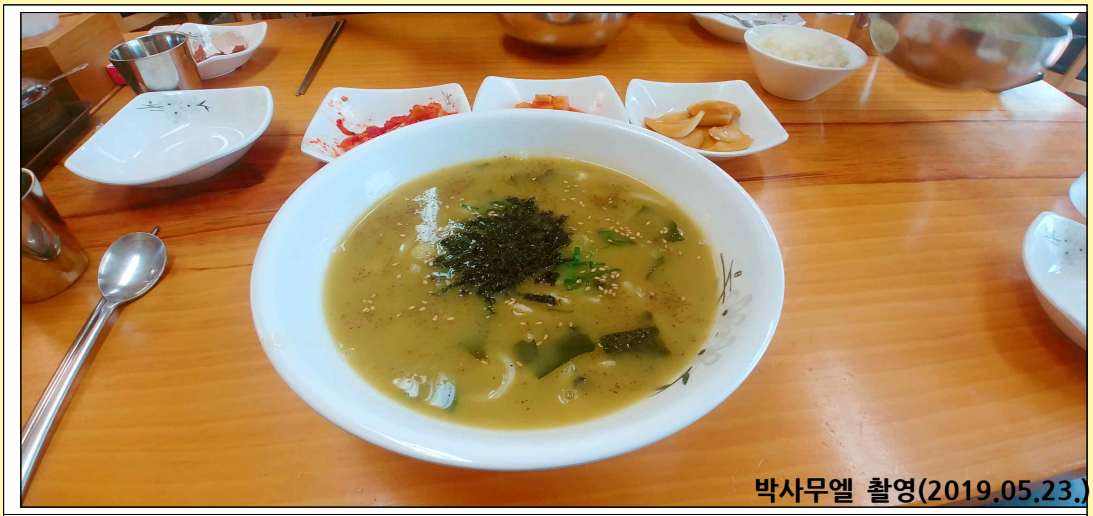
오메기떡, 몸국, 보말 칼국수, 죽, 갈치(호박)국, 꿩매밀국수, 자리젓, 접짝뼈국, 옥돔미역국, 매밀저배기, 호박잎국, 멜국, 곤떡국, 빙떡, 멜국

2. 제주도 현지 음식 중에 어떤 것을 먹고 싶은가? 3가지만 제시하자.

①갈치국, ②몸국, ③보말 칼국수

3. 음식을 직접 먹어보고, 그 중 한 가지 음식만 선택하여 해당 음식의 식재료와 제주도의 지역성을 관련시켜서 조사해보자. 혹은 이 음식의 유래가 제주도의 지역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해보자. (식당 종업원 등에게 묻기)

음식명: 보말칼국수 **주요 식재료: 보말**



박사무엘 촬영(2019.05.23.)

내가 먹은 제주도의 전통음식은 보말칼국수이다. 보말이란 제주도 사투리로 고둥을 의미한다. 보말은 서귀포 바다의 수심 20M까지의 바위나 돌덩어리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우리가 간 가게의 사장님께서는 옛날에는 깊은 바다에 안 들어가더라도 보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잡으러 다녀서 보말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깊은 바다까지도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양식이 불가능하여 자연산으로 직접 채취만으로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말을 예전만큼 구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왜 제주도에서 굳이 보말이라는 재료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냐고 물어보니 과거의 제주도는 많은 음식의 식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지 않고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양도 많아서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보말이어서 과거서부터 보말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말씀해주셨다.

[부록 4]

《우리가 곧 경관이다! (단체사진)》

드론팀 촬영(2019.05.24.)
알뜨르 비행장에서 촬영한 단체사진

드론팀 촬영(2019.05.23.)
하논 마르 분화구에서 촬영한 단체사진

고성규 김동욱 김상우
김선규 김승현 남영현
문홍엽 박사무엘 박석희
박정현 박진우 박태훈
서지수 신혜민 용상민
이다영 이소연 이승현
이승훈 이시연 이왕혁
장한별

지도교수 오정준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화 팩스 053)850-4150 053)850-4151

홈페이지 http://geoedu.daegu.ac.kr